

#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촉구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부총리와 첫 간담회 “수능 절대평가는 모든 교육감 공통 인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19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총회 직후 지난 5일 취임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초청 첫 간담회를 열었다.

이재정 회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새로운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고 경쟁 만능으로 서열화된 교육 체제 개혁을 위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모든 교육감들이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교육 개혁 방안”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입 제도는 고교체제와 연관되어 있는 만큼 총체적인 개혁의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부 내에 유·초·중등 교육 권한과 사무 이양을 위한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신설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권한 이양을 포함한 주요 교육 현안과 교육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감이 함께 하는 공동의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19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총회 직후 지난 5일 취임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초청, 첫 간담회를 열었다. 이재정 회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새로운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고 경쟁 만능으로 서열화된 교육 체제 개혁을 위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했다.

설명한 후 교육감들의 적극적 동참과 협력을 당부하고 “국정과정 중 교육자치 강화는 시·도교육감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정책을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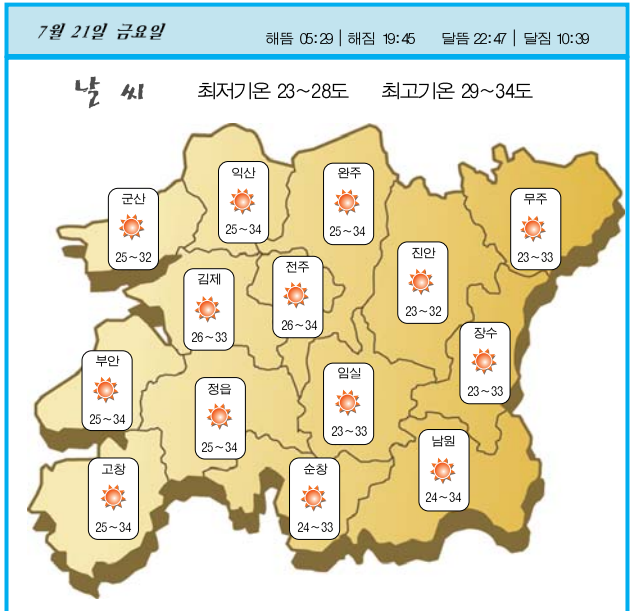
이재정 회장의 유·초·중등 교육

권한과 사무 이양을 포함한 교육 정책 ‘공동의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정책을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회장의 유·초·중등 교육

간담회에서는 최근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필요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감 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협의를 진행했다.

정해은 기자



## 전국상업경진대회 도내 특성화고생 100명 참가

전북도교육청은 20일과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7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 도내 10개 고교에서 100여명이 경기·경연 분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상업 정보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을 발굴·육성하고 상업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해마다 개최되며 올해는 전국의 상업계 특성화고에서 1천9백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경진 분야는 ▲회계실무 ▲창업실무 ▲비즈니스 영어 ▲사무행정 ▲전자상거래 실무 ▲FRX기업지원관리 ▲금융실무 ▲취업설계 포트폴리오 ▲호텔식음료서비스 실무 ▲세무실무 등 10종목으로, 도내 10개 특성화고 60명이 참가한다.

경연 분야는 ▲동아리 콘테스트 ▲동아리 엑스포 ▲경제 골든벨 등 3종목이며, 도내 3개 고교에서 40명이 참가한다.

김승환 교육감도 첫날 대회장인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를 찾아 경진과 경연에 나선 학생과 지도교사 등을 격려했다.

정해은 기자

## 효천지구 바위 절개지 친환경 인공폭포 조성키로

###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전주시가 효천지구 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생긴 바위 절개지를 친환경 인공폭포로 조성해 주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신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효천지구를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해 올 연말까지 효천지구 내 원형보전지역인 기존 대절토 암사면에 친환경적인 인공폭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될 우려가 높은 바위 절개지를 인위적인 격자블록으로 사면을 보강하기보다는 아름다운 인공폭포를 만들어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당초 시는 효천지구 바위절개지의 사면을 자르고 격자블록으로 보강할 계획이었지만 격자블록의 경우 콘크리트구조물이 노출돼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삼천변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인공폭포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인공폭포는 높이 20m, 길이 32m의 계류형 폭포와 함께 상부와 중간 하부에 각각 수조와 양수기 등이 설치되며, 사면보강 및 보호를 위한 초지도 취해질 예정이다.

또한 주민들이 인공폭포에서 산책하

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폭 4~5m, 길이 48m의 데크를 설치하고, 산책로에는 메타세쿼이아 나무 65그루를 식지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인공폭포 설치를 위한 경관심의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뒤 올 연말까지 인공폭포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효천지구를 비롯한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단순한 신도시 개발이 아닌 사람이 우선이고 자연생태가 살아있는 곳으로 만들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가치를 실현하고, 누구나 살고 싶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장 진주다운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학교로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전북도교육청이 매년 변화하는 대입전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진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입시설명회를 추진 중이다.

대상은 1.2.3학년 학생과 교사 학부모이며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진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입 수시 학생부전형 준비 ▲자기소개서 작성법 ▲수도권지역 대입전형 총정리 ▲호남권 대학 입시 설명 등이다.

강의는 전북대입진학지도지원단 강사 14명이 맡는다.

학교당 최대 2회까지 지원하며 3회 이상은 학교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전북도교육청은 방과후 아카데미나 주말 신청학교, 정보소외지역 학교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 청소년 아르바이트 주의사항 안내

전북도교육청이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아르바이트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만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다.

또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금 지급소를 확인해둬야 한다.

주류 판매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선 안 된다.

이와함께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는 법정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만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된다.

특히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다.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밤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

또 휴일 및 초과근무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고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모바일문자상담(☎1388) 또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로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정해은 기자

14살 소녀들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한 학교에 행복한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을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